

이 시 대 마 지 막 구 원 의 서

격암유록

“남사고(南師古)선생의 격암유록은 이미 450년 전에
20세기 말 구세진인의 강림! 모든 말씀의 완성은 간방의 한국에서!
불사해인(海印)의 출현! 꿈과 같은 불로불사시대의 도래!
마음(心)이 참된 피난처임을 정확히 예언했다!”

해인으로 몸, 마음을 닦아 혈액관통, 심령변화가 일어나면 죽음이 죽기 시작하며 마음과 몸이 그지없이 맑고 편안해진다. 육신(외모)이 젊음과 균형, 아름다움을 찾으며 감기몸살, 소화불량, 만성두통, 만성피로 등이 없어지는 것은 기본이다. 굶은 등, 허리가 펴지고 모든 증상이 치유, 개선되며 병에 대한 저항력과 예방력이 무한대로 커진다. 의료보험증을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된다. 해인은 진실 되게 닦는 자의 참자아를 회복시켜,

집착, 원망, 증오, 시기질투, 피해의식 등의 죽음의 관념에서 벗어나게 하고 너와 나, 만물만상이 하나이며 자신이 모든 일과 세상의 창조자라는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세상을 평화롭게 변화시킨다. 아무리 신실하게 닦고, 믿고, 기도하고 염불을 드려도 삶에 늘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고 몸이 아프고 병들며 마음은 번뇌와 방향이 끊이지 않는다면 참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격암유록의 진리는 사는 길, 피난의 길, 구원의 길 이 오직 마음(心)에 있다는 것이며, 중대한 미래 예언은 불로불사시대의 도래와 새 시대로 가는 길목에 기다리고 있는 대환란이다. 환란은 사람들의 마음가짐에 따라 규모가 달라진다고 하나 그 어떤 것도 장담할 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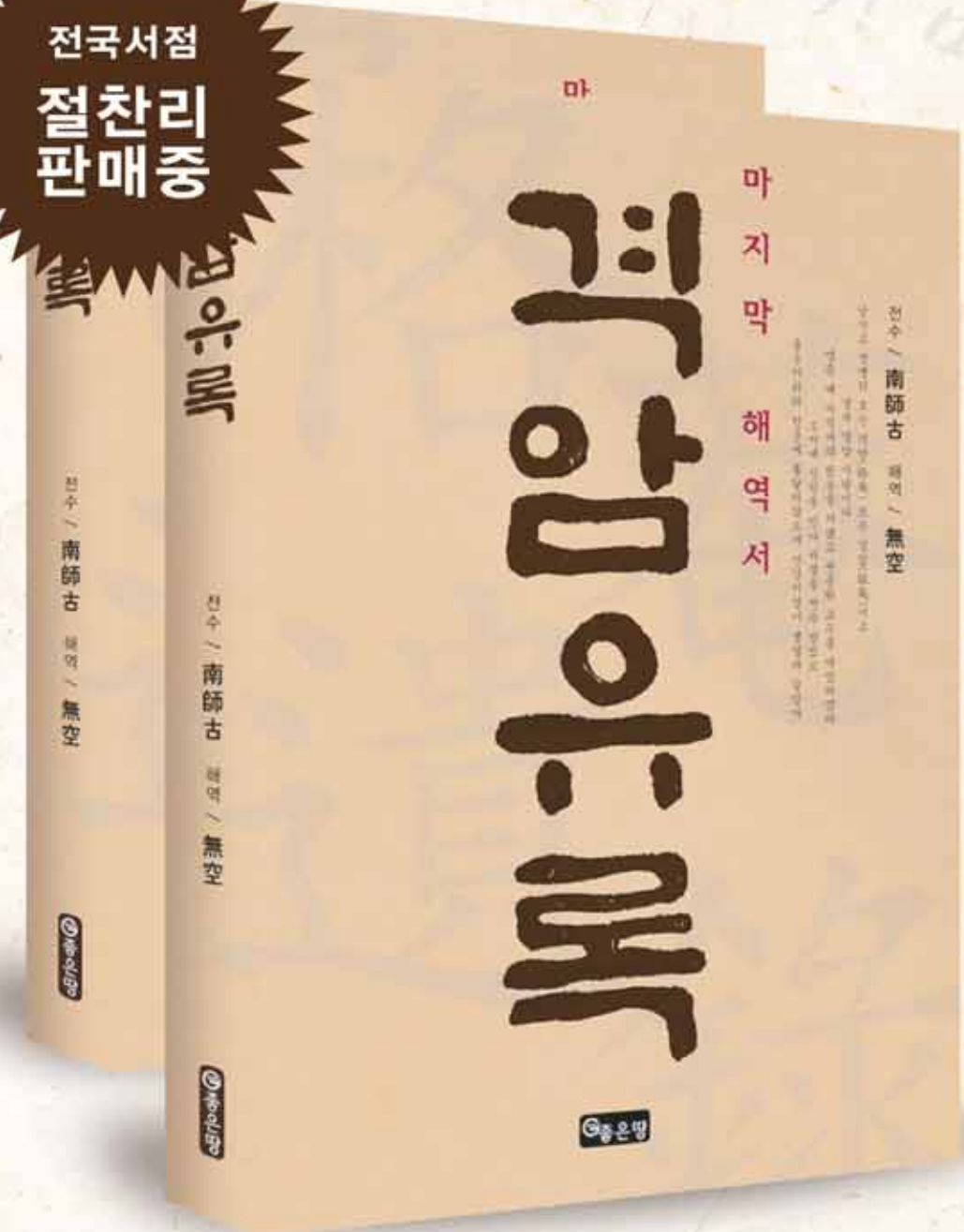
근자에, 지구보다 차원이 높은 세계에서 전해오는 소식이 격암유록에 담긴 교훈이나 예언과 그대로 일치하고 있음은 실로 놀라운 일이다. 그런 세계에서 날아온 소식들의 공통점은 지구가 금세기 초반에 차원상승이 이루어진다고 하며, 사람들이 새로운 지구와 조화하려면 가까이 남은 사고를 버리고 자기변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기운이 바뀐 지구에서 생존이 어려워지며, 불로불사를 이루는 근본역시 인간의 상승한 의식이라고 말한다.

격암유록은 표현만 다를 뿐이지, 글 뜻이 이러한 외계의 소식과 완전히 일치하고 있으며 더욱이 미래예언은 그들보다 더욱 구체적이며 진실보한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대변혁기의 입구에 인류에게 사는 길을 열어주려 오시는 유일한 분을 밝히고 있는데, 20세기 말(1999. 7) 한반도에, 생명수 물병을 들고 강림한 미륵불이 그분이며, 율불선을 비롯한 모든 종교와 도에서 기다려온 한 분이자, 인류구원과 인간생사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인비인(似人非人)이다.

다시 말해, 이 시대에 오신 진인은 새 시대의 길목에서 참된 구원인 '진아(眞我)회복'과 '불사의 길'을 열어주려 오신 인류의 대스승이시며, 오직 인류의 하나 됨과 자신의 참된 근본을 찾으라는 하늘의 뜻에 순종할 자를 도우려 오셨다. 과거의 스승들과 다른 점은 불사의 해인을 들고 오셨다는 것이다.

“이 책은 어떤 경전이나 예언서에도 없는, 환란 중에 사는 길을 명확히 제시한 진경(眞經)이며 하늘이 예정한 일과 참뜻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 위해 출간된 천서(天書)다.”

전국서점
절찬리
판매중



전수 남사고(南師古) / 해역 무공(無空)
152*225 / 440쪽 / 종은망 / 25,000원